

합격기
[제53회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

노력의 힘



손 은 정

- 1986년 2월 생
- 광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제53회 행정고시 재경직렬 합격

I. 이 글을 읽으실 수험생 여러분께..

벌써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가을입니다. 합격자 발표날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던 작년 이맘때가 생각이 나고, 지금 이렇게 조금 늦은 합격수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금 느끼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막막함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제가 다른 수험생 분들에게서 질문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히 기술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정답이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고 읽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많은 선배분들의 조언과 방법들 중에서 취사선택을 하고 저 나름의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II. 1년차 (2007년) : 행시에 입문하다.

제가 2007년에 처음 1차를 응시하게 된 것은 상당히 즉흥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행시를 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였지만 실은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동기들 중 행시를 준비하겠다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교환학생을 가는 것과 행시에 입문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비교한 끝에 교환학생 준비를 사실상 포기하고 1차시험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때문에 보았던 토플 성적표를 제출하고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1차시험을 약 한달 정도 준비

하였습니다. 오히려 심리적 압박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체험해본다는 식의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점 때문인지 그 해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았고 자료해석은 기본서를 본 정도여서 1차시험 발표가 나기 전에 심지어 채점도 하지 않았고, 물론 시험결과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3월에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과목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아무런 방향 제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학교 고시반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고시반에서는 출석체크와 벌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공부 태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학교 수업과 고시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아무래도 고시 공부에만 치중하기는 어려웠고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이중전공을 경제학과로 정한 후여서 학교 수업 중에 2차과목과 겹치는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 국제 무역론 등을 수강할 수 있었고, 학교시험을 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과목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점은 좋았습니다. 경제학 이외의 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의 경우에는 확원 기본강의를 듣고 기본서를 읽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었는데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경제학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공부하기에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

정법의 경우에는 기본서를 1회독 하면서도 좀체 감이 잡히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는데, 아마 비법대생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통과외레라고 위안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기대하지 않았던 1차 합격소식을 접하였고, 저는 그야말로 얼떨결에 2차시험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허수로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지만, 시험장에서 느꼈던 수험생들의 열기는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할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나도 내년에는 저렇게 열심히 답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시험장을 나왔습니다. 2007년 말까지 2차과목 기본강의를 한번씩 다 보고 기본서를 1회독 이상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스테디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시반 선배분들이 해주신 조언을 흘려듣지 않으려 하고,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차 과목의 경우에는 스테디는 어느 정도 과목들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인 후에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답안을 작성하기 시작하는 2순환이나 3순환의 경우에는 답안을 많이 작성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다른 사람의 답안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 자신의 답안을 검증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안 스테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Ⅲ. 2년차(2008년): 공부의 수준을 끌어올리다.

1. 1차의 대비

2007년 말에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부터 1차준비와 2차준비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1차의 경우 07년에 합격을 한 번 하였지만 PSAT에 대한 요령이나 제 자신의 취약점을 알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08년부터 시험준비를 제대로 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PSAT의 경우 언어논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자료해석이나 상황판단의 경우에는 좋은 점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두 과목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해석은 점수를 많이 향상시키는 것 어려울 듯하여 매일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잃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상황판단의 경우에는 고시반 내에서 스터디를 조직하여서 각자 문제를 풀어오고 어떻게 풀었는지를 설명해보는 식으로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문제풀이 요령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어려워진 상황판단시험에 대비하는데 적합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기본적으로 PSAT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았을 때 이것을 풀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논리의 경우는 논리문제에 대한 연습만 충분하다면 40문제를 모두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나머지 두 과목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몇 초 내에 그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김진욱 강사의 경제학 2순환을 동영상으로 들으면서 경제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 못하였던 행정학도 새 행정학 교과서를 1회독 하였습니다. 1차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2차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점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히 PSAT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지는 않았고 기출문제와 스터디, 제가 터득한 요령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 1차 시험 전 2개월 정도 PSAT 공부를 하였고, 2차공부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차공부를 하루 공부의 30% 정도로 할애하였습니다.

1차시험을 보고나서 가채점을 한 결과가 합격선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편히 2차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학교를 휴학하고 처음으로 신림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2차 대비와 신림동 생활

고시반 선배들로부터 신림동의 암울함에 대해 익히 들었던 터라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신림동 생활은 녹녹하지 않았습니다. 신림 9동 고시원에 방을 구하고 나니 앞이 캄캄하고 내일이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때 신림동에서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3순환을 들었었는데 제대로 답안을 쓰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정말 따라가기 벅차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제외하고는 2순

환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답안을 기술하는 법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학원강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갔고, 답안도 비록 다 쓰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읽어보고 초안이라도 작성해보자는 마음으로 버티곤 했습니다. 저는 주로 오전 영상강의를 들었는데, 아침에 모의고사를 보고 수업을 듣고나서 오후에는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모의고사의 경우 최고 답안을 벤치마킹해서 다시 써보는 방법으로 답안 작성 방법을 터득해갔고, 저녁에는 주로 예습을 하였습니다. 이때 답안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밥터디를 하면서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5월에는 학교근처로 방을 옮겨서 다시 고시반에 복귀하였고, 국제경제학과 재정학강의는 3순환 동영상강의를 보았습니다. 3월과 4월의 연습을 통해 어느 정도 답안 작성에 대한 틀이 갖춰졌다고 생각이 되어 5월에는 학교내에서 답안스터디를 구했습니다. 이때는 100점짜리 답안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해보았고 이때 처음으로 실제 2차시험의 연습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6월에는 더 이상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고 저 혼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딱히 서브나 단권화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답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2시간 시험에서 문제를 보고 초안을 작성하는 것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잡았고 시간배분은 배점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초안을 자세하게 작성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였습니다. 다만 경제학

과목의 경우 그래프나 수치계산과 같은 것은 초안용지에 연습을 하고 답안에 옮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시간배분을 고려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점은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5일에 걸쳐 계속되고, 시험이 거듭될수록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증가 할 때마다 여기서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같이 졌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시험장으로 향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3. 2차 이후

2차가 끝나고나서 한 달 정도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머리를 비웠습니다. 2차를 합격하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휴식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학교로 돌아가 복학을 하고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기본서를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2차 시험을 보면서 시험의 경향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중시되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내용을 얼마나 답안지에 잘 풀어내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았습니다. 특히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에 비해서 내 답안지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고시반 내에서 답안작성 스터디를 하였는데, 시간 제한없이 자료를 참조하면서 좋은 답안 쓰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Ⅲ. 3년차(2009년): 산넘어 산, 그러나 합격은 달다.

1. 1차와 2차공부

2008년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후 신림동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하였고, 1차가 끝나면 이사를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1차시험은 광주에서 신청하였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1차 시험 3일 전 광주로 내려가서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 풀어보고 그 전날은 기출문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예상보다 쉽다는 분위기였고, 저의 주력과목인 언어논리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나온터라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합격선이 많이 오를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2차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여 신림동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2차공부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정리”였습니다. 전 해 2차시험에서는 내용 정리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 작성도 익혀야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시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었는데, 3순환 강의를 들을 때에는 대략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목표로 하고 그 후 5월말부터 6월까지 13시간을 기본으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1시간 내지 2시간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3순환강의가 끝난 이후에는 4순환강의는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투자가 가능하였습니다.

3월에 답안스터디를 구하였는데 다른 강사의 수업을 듣는 멤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제가 수업을 듣지 않았던 다른 강사의 문제도 구하여 풀 수 있었고, 3순환이후에는 두 시간짜리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 답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때가 수험생활 중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한 기간이기도 하고 그만큼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동안 공부한 것이 모두 헛된 것인것만 같고, 올해 붙을 수 있을지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으며, 소음문제로 인하여 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머리를 잠시 비운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각자에게 적합한 스트레스해소법을 개발해두는 것도 수험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달은 그래도 최대한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였고 독서실도 집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2차 공부는 거시적으로 한 달 계획을 작성하였는데, 계획을 세울 때에는 학원의 강의나 스터디 계획에 맞추어 짜시되,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일주일 계획을 세울 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꽉 채워서 짜지 말고 일요일은 비워두고 주중에 하지 못한 것을 일요일에 하겠다는 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그날 공부한 것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이어리

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루의 마지막 일과로 삼았습니다.

2차시험에 임하여서는 시험 전에 보려고 정리하였던 서브나 단권화한 교과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회독수를 늘렸던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다행히 시험 전날 1회독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과목에서 주제를 찍거나 하지 않았고, 가능한 눈에 담아두려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인 행정법에서 시간 배분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20점짜리 마지막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서 글씨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작년에 좋은 점수를 받았던 행정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국제경제학 시험에서는 그 해 입법고시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이론이 문제에 등장하여 당황하였습니다. 시험 외적으로는 시험장으로가는 버스를 타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옷이 다 젖어버렸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 그대로 시험을 보아야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위해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까웠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계속 볼 수 있었습니다.

2. 3차면접

2차시험 이후 한 달 정도 휴식을 갖고 다시 신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시험 내내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복학을 하지 않고 계속 휴학을 하여 공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2차 합격이 더욱 두려웠던 이유는 3차 면접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너무 험난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제

가 면접으로 인해 대학 수시를 떨어친 경험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면접뿐만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것조차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합격을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자고 스스로 다짐하였습니다.

2차합격자 발표가 난 후 3차 면접일까지는 대략 한 달의 준비기간이 주어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도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다만 모든 2차합격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에 자신의 단점을 얼마나 잘 극복해낼 것인가가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원래 말투도 느린데 답변을 장황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고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은 크게 오전에 하는 집단토론과 오후에 하는 개별면접으로 나누어져 진행됩니다. 개별면접에서는 주어진 발표주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며, 3개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사전조사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또는 기본적인 질문(공무원이 되고자하는 이유)이 나오기도 합니다.

3차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스터디를 통해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확실히 조언해주고 이를 고쳐나가도록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터디에서 토론한 것을 앰피쓰리에 녹음하며 스터디원들과 공유하였는데,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는 좋지않은 습관을 고치는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토론에

서는 앞선 발표자가 말한 내용을 요약해 주면서 시작하는 것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토론에서 제시된 주제를 꼼꼼히 인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학원야간수업 제한 규제에 대한 토론이라면 그 반대논리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것보다는 실효성이나 그 부작용을 근거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데, 이유는 방과 후 10시 이전까지는 충분히 학습권을 누릴 수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모의면접에서 교수님께서 지적 해주신 부분입니다).

발표는 반부패정책과 관련한 주제였으며 부패지수와 부패에 대한 글 등을 기본자료로 제공받았습니다. 저는 발표할 때 구상한 정책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피라미드 형태의 도형으로 칠판에 그렸습니다. 즉, 처음에는 부패에 대한 인식조사, 두 번째는 제도개선 세 번째는 부패를 넘어선 청렴으로의 도약이라는 단계로 접근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발표조 중 가장 마지막인 7번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발표는 간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부패에 대해서는 주어진 자료 중 부패지수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포퓰리즘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인성면접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전조사서에 쓴 내용 이외의 것을 한 경험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물으셨고, 다른 질문들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외에는 딜레마질문을 하셨는데 시간약속을 매우 중시하는 외교단과의 약속이 있는데 시간은 5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길을 잃은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셔서 이에 대해 그 할머니를 모시고 외교단과의 약속 장소로 간 다음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 당시 큰 이슈였던 세종시 수평안치형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는 경우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와 관련하여 '영혼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아마 최신의 이슈를 직접 물으시는 것 보다는 관련하여 공직자로서 생각해볼 점을 질문하실듯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으로는 공직지원동기와 가고 싶은 부처, 그 부처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기본적인 것이라 오히려 연습을 하지 않고 지나칠 수도 있는데 꼭 사전에 연습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IV. 과목별 전략

1. 경제학

경제학은 첫째로는 계산문제의 경우 정답을 내는 것과 둘째로 수식, 그래프, 서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미시는 이준구저, 거시는 정운찬저와 맨큐저를 보았습니다. 미시에서 이영환저 해설미시를 풀었고, 임봉욱저 미시연습도 참고하였습니다. 강의는 김진욱 강사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내용과 기본서를 가지고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니다. 서브는 일반 500원짜리 노트에 미시 한 권과 거시 한 권을 만들었는데 기본 개념과 그래프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2. 행정법

행정법의 경우 최근 기출문제는 거의 모든 문제가 판례가 존재하는 사례로만 나오기 때문에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논점의 정리와 문제점, 사안의 경우를 정말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제시된 법조문이나 행정소송법 조항을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서브는 만들지 않고 정선군저 행정법 액기스로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정진, 김기홍 강사수업을 듣기도 하였으나, 08년부터 정선군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교과서도 한 번 바꾸기는 하였는데 어떤 책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한테 더 보기 쉬운 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리할 때 답안지에 쓰면 좋을 표현들을 연습장에 정리하여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훑어보았습니다.

3. 행정학

이동호 강사의 1순환을 들으면서 교과서랑 중요한 논문을 보고, 3순환은 박훈 강사 강의를 들었습니다. 박훈 강사의 수업 자료로 서브를 대체하였습니다. 답안지 작성에 쓸 문구나 키워드를 따로 정리하였고 합격하신 선배의 조언을 받아들여 큰 주제별로 서론이나 결론을 써놓고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론을 너무 잘쓰려고 하기보단 무난하게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행정학은 정말 많이 써보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써본 답안을 다시 한 번 써보면

서 자신의 약점이나 강점을 발견해보고 글실력도 다듬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재정학

재정학은 계산문제도 나오지만 서술식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재정학적으로 잘 기술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교과서는 이준구저를 보고, 이만우저를 참고하였습니다. 재정학은 서브를 만들었는데 방식은 경제학 서브와 비슷하였습니다.

5. 국제경제학

김인준저 국제경제학을 보고, 김진욱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서 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교과서에 단권화를 하였습니다. 국제경제학의 경우 자칫하면 개념도 헛갈릴수 있는 터여서 기본개념과 이론을 숙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V. 마치며

돌이켜보면 헛웃음이 날 정도로 막연한 상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잘 모르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무모하지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는 다른 이들과의 경쟁 하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점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수험생 여러분께서 노력을 통해 합격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수험기간 동안 부족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들, 선배님들과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후배님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